은퇴의 기로에서 미국프로축구리그(MLS)를 선택한 이영표가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으로 지난 시즌 '꼴찌' 밴쿠버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최현길이 만난 사람

이영표의 MLS 성공시대 아메리칸 드림

낮엔 축구 밤엔 공부… "난, 두얼굴의 사나이"

지난해 가을, 이영표(35·밴쿠버 화이트캡스FC)는 현역 은퇴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나이도 그렇고, 그동안 이룰 것은 다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든 유니폼을 벗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주위에서도 만류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부'였다. 은퇴보다는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이 바로 미국프로축구리그(MLS) 밴쿠버다. 정상을 원한 건 아니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 한 가지 생각 뿐. 축구화 끈을 조여 매고 유니폼을 입자 힘이 났다. 말 그대로 베테랑의 관록이다. 개막전부터 진가를 발휘했다. 4월29일 콜럼버스(미국)와의 원정경기에서는 MLS 데뷔골이자 결승골도 터뜨렸다. 사우디알 힐랄에서 뛰던 2010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이후 2년만의 골이다. 아직도 팔팔하다. 1일 국제전화를 통해 그와 인터뷰를 했다.

스포츠 2부 부장

학업·축구 병행 위해 건너간 미국
서른 다섯에도 그라운드 종횡무진
시즌 1호골·팀 상위권 도약 견인

축구외엔 영어…행정가 꿈도 무럭

-리그 적응이 완벽한 것 같다. 데뷔골까지 넣었으니.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런데 기분은 좋다. 미국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분들이 응원을 많이 오셨고, 좋아하셨다."

-경기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겠다.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이곳 축구가 인기 없는 줄 알았다. 편하게 축구할 생각이었다. 공부도 하고. 하지만 교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타향에서 생활하다보면 조금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 달래기 위해 경기장에 오시는 것 같다. 그런 걸 보면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경기 끝나고 사인해주다보면 태극기 흔들면서 울고 그러더라. 애국심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초반에 팀이 잘 나가는데.

"우리 팀은 작년에 리그 전체에서 꼴찌를 했다. 올해 초반은 잘 되고 있다. 원정경기에서 처음으로 이긴 것도 기념할만하다.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왔으니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올해 목표는 플레이오프(PO)에 나가는 것이다." (밴쿠버는 지난 시즌 MLS에 진출했다. 지난 시즌 성적은 꼴찌. 하지만 올 시즌 3일 현재 4승2무2패로 서부지구 3위고, 전체 19개 팀 중 5위다. 플레이오프는 각 지구 5위까지 진출한다.)

-관중 수준은 어떤가.

"상상 이상이다. 여기(밴쿠버)에는 경기당 평균 관중이 2만 명을 넘는다. 홈경기 때마다 매번 꽉 찬다."

-그렇게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나.

"밴쿠버 구단은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다. 프런트 직원만 70명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국내 팬들에게 MLS를 소개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엄청 빠르게 발전했다. 명문으로 꼽히는 시애틀은 평균 관중이 4만명을 넘는다. 미국 프로스포츠 중 평균 관중으로만 따지면 야구, 미식축구에 이어 3위다. 10년 안에는 인기도 면에서 3대 스포츠 안에 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역사는 짧아도 시스템이나 마케팅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강한 리그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영표는 프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딜 가나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 다양한 리그를 돌면서도 실패를 몰랐다. K리그(안양 LG, 현 FC서울)를 비롯해 네덜란드(에인트호벤) 잉글랜드(토트넘) 독일(도르트문트) 사우디아라비아(알 힐랄) 등 각 리그의 정상권 팀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이영표를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를 성공 비결로 꼽을 수 있다. 뛰어난 기량과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성이 첫 째다. 이는 왕성한 체력의 근원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이 두 번째다. 어딜 가나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종교적인 신앙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기자의 개인적인 평가다. 이영표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어느 리그에 가도 잘 적응하는 선수라는 평가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웃음) 굳이 말하자면 구단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해야 할 게 뭔지를 잘 안다는 거다. 팀이 왼쪽 포지션인 나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 말고 특별한 것은 없나.

"첫 해외 무대인 네덜란드에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3개월 동안 동료들이 볼을 안주고 텃세만 부렸다. 하지만 잉글랜드 진출 이후부터는 쉬웠다. 모두들 나를 알아봤다. 그래서 적응이 쉬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축구 중계를 통해 동료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더라. 그게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나이가 서른다섯이다. 힘들지는 않나.

"땅이 넓다보니 이동 거리가 많다. 시차 때문에도 힘들다. 1주일에 2경기를 하더라도 홈이면 괜찮은데, 홈과 원정을 오가면 힘들다.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

-별명 같은 것이 생겼나.

"우리 팀은 16개국 출신들이 모여 있다. 참 다양한 국적이다. 우리 팀에서 골키퍼 다음으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시켰다. 나를 보면 한국말로 '형'이라고 한다. 그게 호칭이다."

-축구 이외에 하는 것은.

"영어 공부다. 해도 해도 힘들다. 영국에서는 생존을 위해 영어를 배웠다. 소위 서바이벌 영어였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문법 등을 해야 한다. 정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니 힘들다." (이영표는 조만간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단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주경야독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가라는 미래의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영표는?

▲생년월일: 1977년 4월 23일 (강원도 홍천)
▲신체조건: 177cm, 66kg
▲학력: 안양중→안양공고→건국대
▲소속: 1999년 안양 LG입단→에인트호벤(네덜란드)→토트넘(잉글랜드)→도르트문트(독일)→알 힐랄(사우디)→밴쿠버(캐나다)
▲경력: 시드니 올림픽 대표~2002, 2006, 2010년 월드컵대표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트위터@b612min

꽃샘추위·비바람·폭우… FC서울 "아, 하늘이시여"

날씨 변덕·주말 빅매치 실종…관중 40%나 급감

FC서울은 명실상부 K리그 최고 인기구단이다. 2010년부터 2년 연속 정규리그 평균관중 1위다. 다른 팀들이 크든 작든 관중 뻥튀기를 해왔던 것에 비해 서울은 2005년부터 실 집계를 해왔기에 더 의미가 크다. 프로연맹은 올 시즌부터 정확한 관중 숫자를 체크하기 위해 실 집계 방식을 전 구단으로 확대했다. 10라운드를 마친 현재 K리그 관중 거품의 실체가 드러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니 제주와 대구를 제외한 전 구단의 평균관중이 적게는 20%, 많게는 70%까지 급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도 42%(2011년 2만8647명→2012년 1만6613명) 떨어졌다. 이유가 뭘까.

●날씨·대진·요일 삼박자

서울 이재호 마케팅 팀장은 "시즌티켓 소지자를 포함한 고정관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중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서울은 매 경기 약 2만 명을 고정관중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제외한 4000~5000명의 가족단위 관중들이 발걸음을 줄인 것이다.

가족단위 관중 입장 수는 날씨에 따라 편차가 큰데 올해는 하늘이 서울을 도와주지 않았다. 올 시즌 서울의 홈 5경기 중 4월8일 상주 전을 제외하면 모두 날씨가 안 좋았다. 3월10일(전남), 3월18일(대전)은 꽃샘추위가 몰아쳤고, 3월25일(전북)은 경기 전날까지 날씨가 화창하다가 막상 당일 강한 바람이 불어 기온이 뚝 떨어졌다. 예매 취소분이 많았다. 4월21일 제주전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요일과 대진의 영향도 있다. 서울은 주말 낮 경기의 경우 토요일보다 일요일을 선호한다. 고정관중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꾸준히 경기장을 찾는다. 반면, 토요일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 가족관중이 일요일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서울의 올 시즌 홈 5경기 중 일요일은 3경기, 토요일은 2경기였다. 일요일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일요일 경기 상대가 전북, 대전, 상주였다. 전북을 제외하면 주목도가 낮은 매치 업이었다. 대진과 요일의 시너지 효과를 못 봤다. 반면, 작년 서울은 3월6일 일요일에 수원과 홈 개막전을 치르면서 5만1606명이 입장했다. 시즌 초반 확실하게 바람몰이를 했다. 이 팀장은 "이런저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고정관중을 늘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작업에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홈경기 분위기 반전

서울은 5월5일 어린이날 포항과 홈경기를 분위기 반전의 적기로 보고 있다. 공휴일이고 날씨도 화창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대는 강호 포항. 모든 게 최적의 조건이다. 서울은 가족단위 관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좋은 기억도 있다. 서울은 2년 전인 2010년 어린이날 성남과 홈경기에서 6만747명이 경기장을 찾아 K리그는 물론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관중 기록을 세웠다. 서울 전재홍 홍보팀장은 "라이벌 수원이 아니어도 구름관중이 올 수 있다는 걸 2년 전 어린이날에 확인했다. 이번에도 많은 관중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1골당 3만원!…스탠다드차타드 '유소년 장학금' 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스탠다드차타드 유소년기금적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K리그 유소년축구 발전프로그램 후원사인 스탠다드차타드는 올 시즌 K리그 전 경기에서 기록된 득점에 한해 1골당 3만원씩 적립, 유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2011시즌에는 655골이 터져 2천만원이 적립됐다. 이를 통해 K리그 16개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 90명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

전종구 목요언론인클럽 회장, 대전 대표이사직 맡을 듯

대전 시티즌이 공석중인 대표이사 자리에 전종구(57)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대전 인사위원회는 1일 면접대상자 3인을 심사한 끝에 전 회장을 결정했다. 대전은 5월 중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전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광고)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 하나로 준비 끝!

하나의 상품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무)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 보장은 물론 특약으로 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상품에 대해 무료전화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080-399-0099/www.directlife.com)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10호(2012.1.27)

'발 밟기 고의 반칙' 스테보, 2경기 출전정지

'과격한 태클' 윤신영은 4경기 못뛰어

수원 삼성 공격수 스테보(사진)와 경남FC 수비수 윤신영이 각각 2경기, 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성남 일화 신태용 감독, 스테보, 윤신영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윤신영은 4월29일 제주 원정에서 과격한 태클로 홍정호에게 상해를 입혀 4경기 출전정지, 120만원 제재금을 받았다. 스테보는 4월28일 성남과 홈경기에서 상대 에벨찡요의 발을 밟아 부상을 입혀 2경기 출전정지, 120만원 제재금을 받았다.

이는 비디오판독을 통한 추후 징계에 해당한다. 윤신영은 당시 경기 중 경고만 받았고 스테보의 반칙은 주심이 아예 못 봤었다. K리그에서 추후 징계가 나온 건 2009년 4월13일 당시 성남 소속이던 모따가 인천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3경기 출전정지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앞으로 사후 비디오판독이나 증언을 통해 제재를 가할 만한 행위는 제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운택 심판위원장은 "윤신영은 만약 퇴장을 당했더라도 난폭한 행위로 추가 상벌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 퇴장 2경기에 추가징계 2경기가 더 부과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신태용 감독은 4월28일 수원 원정 후 공식인터뷰에서 심판을 비판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코칭스태프, 선수 등 K리그 관계자가 심판과 관련해 공식인터뷰 등에서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